

정읍 '삼남대로 갈재' 관광 명소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고려~조선시대 주요 교통로 역사적 가치 재조명해 정비



지난 19일 정읍시청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읍의 주요 교통로였던 '삼남대로 갈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정비함으로써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황혜숙·정상철 시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남대로 갈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용역은 지난 2021년 12월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삼남대로 갈재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갈재 활용방안 모색, 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삼남대로 갈재 배경과 현황 ▲정비계획의 기본구상 ▲부분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활용 방안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등 삼남대로 갈재의 정비방안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삼남대로 갈재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 주민 참여와 지역특산물 활용을 위한 주말체험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지정 구간 외 샛길 편백 및 황토길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문화재정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삼남대로 갈재는 과거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정읍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용역에서도 출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삼남대로 갈재가 대표적인 역사·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백종원 '남원 춘향제'에 뜬다

더본개발원과 프로그램 협업...농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남원 춘향제에 백종원이 간다, 백종원이 손댄 남원 춘향제는 어떻게 변모할까?"

남원시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94회 남원춘향제'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요식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지역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관련 메뉴개발, 컨설팅, 교육, 창업지원 등을 하는 외식전문기업이다.

시는 더본과 함께 오는 5월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는 남원춘향제에서 고품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해 선보인다.

또 축제 먹거리부스를 기획해 맛과 안전을 물론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나아가 막걸리축제 행사장인 남원시 경외상가를 리모델링해 지속가능한 청년먹거리 상가를 구

축함으로써 도시브랜드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방침이다.

자세히는 춘향제에 참여하는 더본이 ▲막걸리축제 ▲전통음식 테마의 '춘향 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먹거리부스 운영자 선정 후에는 일대일 컨설팅 교육까지 받게 된다.

음식에 대한 일정부분을 더본이 맡는다면 시는 '바가지요금' 없는 춘향제가 되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남원춘향제 기간 각각의 먹거리 존에 키오스크를 활용한 투명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해 만든 신메뉴와 함께 전통음식, 막걸리, 다양한 세계음식을 테마로 맛있고 풍성한 남원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라며 "상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부지 확보

옛 서남대 매입 마무리...국유재산 전환 남아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위한 옛 서남대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남원시는 서남학원 청산인 측과 옛 서남대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부지 매입을 검토했다. 전북대가 글로벌대학 30에 예비 지정된 지난해 6월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로 205억원을 편성했다. 서남학원 청산인과 수의계약 방식의 부지 매입을 놓고 긍정적 의견을 이어온 끝에 매입을

마무리했다. 남원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따라 이어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게 과제다. 국유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시는 최근 부지 내 미준공 건축물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운봉의 국유재산 부지와 대토 방식의 교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족한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푸른숲자연장 추모목 추가 식재

10년간 안장건수 6배 증가...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고창군이 증가하는 자연장 이용객 수요를 대비해 '고창푸른숲자연장' 내 추모목(백일홍) 30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고창푸른숲자연장은 조성 당시(2012년)만 해도 연간 106기가 안장됐지만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2023년 말 기준)는 한 해 686기의 안장이 이뤄지는 등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전통 매장 문화가 화장 및 수목장으로 바뀌면서 푸른숲자연장의 전체 안장은 4186기에 달하며 이중 화장한 유골을 수목 주변에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이 전체 안장 기수 중 70% 이상 차지하고 있

다. 고창푸른숲자연장은 수목형, 정원형, 잔디형 등 3가지 유형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운영 중이다.

고창군은 2022년에 개장한 무장늑두숲자연장과 함께 자연장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정재민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화장 장례문화가 점점 정착하는 만큼, 자연장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햇살 좋은날 '고창 갯벌·선운사 길' 쉬엄쉬엄

서해랑길 코스 걷기 프로그램 명사와 함께 걷기 등 33차례 기암괴석·낙조 감상...11월까지



고창서해랑길 41코스 구시포해수욕장 낙조.

고창군이 봄을 맞아 고창갯벌과 선운산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서해랑길 코스' 걷기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해랑길 걷기프로그램 주관 여행사(주민공정여행사 팍팍)를 선정하고 3~11월까지 운영한다.

고창 서해랑길 41, 42, 43코스는 동호항, 염전, 서해안 바람공원, 선운산 기암괴석 등 주요 지점을 잇고 있는 길로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갯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산의 절경 또한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로 꼽힌다.

올해 프로그램은 ▲명사와 함께하는 서해랑길 ▲서해랑길 전 구간을 이어 걷는 서해랑길 고창 524 ▲찾아가는 고창 서해랑길 등 테마형, 체류형, 축제형으로 구성되어 총 33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당일형 상품은 참가비 1만원이며 디지털관광주 민증 발급 시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원면 갯벌센터 인근에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쉼터 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며,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웃도어 여행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협업해 선운사와 동백꽃 힐링 산행을 주제로 한 행사도 진행한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산업과장은 "봄을 맞아 아름다운 고창 서해랑길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좋은 기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해랑길을 전국 최고의 걷기여행 명소로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